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고통을 나누면 행복이 보입니다

교황 “한반도 상황 특별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주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 연설에서 작년 6월 발생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 악화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의 언급은 한국 안팎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교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작년 12월 새로 부임한 추규호 주교황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밝혔었다.

180여 개국의 주교황청 대사가 모인 신년 하례식에는 추 대사로도 참석해 교황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추 대사는 ‘교황께서 평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고, 교황은 “고맙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날 한반도 문제 외에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보건·사회·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이민자·난민, 테러리즘 등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들을 두루 돌아보며 그 대응을 위한 인류의 단합과 연대를 촉구했다.

정치 위기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재차 거론하며 구급된 정치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교황은 “수십년 간 이뤄진 민주화의 길이 지난 주 쿠데타로 갑작스럽게 가로막혔다”며 “그 과정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체포됐다. 국가의 선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고무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즉시 석방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의 방법은 재시, 법시, 무외시 3가지가 있습니다.

재시(財施)는 물질을 원인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과 더불어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 현재는 따뜻하고 미래는 평화스러워짐이 재보시입니다.

이때 우리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질이 모두 청정한 것, 즉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강경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제4’를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나 조건 등 이유를 달지 않고 보시할 때 진정한 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시(法施)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좋은 말씀으로 그를 편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뇌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



▲ 그래픽=타운뉴스DB

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행위가 법보시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변에는 의외로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장황한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는 한 마디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범망경은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보살을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구하는 온갖 것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시하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계승과 작은 법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 죄입니다.”

물질을 보시하면 얼마간의 고뇌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베풀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잡아합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베풀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베풀면 잘 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풀면 인락을 얻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얻으리라.

집으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면 감로(甘露)를 베푸는 것이니

라. 감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요.”

무외시(無畏施)란 다른 생명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는 행동입니다. 즉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의 자애로움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고통에 대한 애정 어린 공감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외시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여기가 곧 극락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리이고, 현재를 살아 가는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논리입니다

베푸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대승에서 강조하는 이타적(利他的) 자비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보시하려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보시할 때에는 마음이 흐뭇하며, 보시한 뒤에는 마음에 후회 말라, 그리하여 우리의 어린애는 죽지 않으리. 주려 할 때는 그 마음 기쁘고, 줄 때에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 하라. 이것이야말로 참 자선(慈善)이니라.” <본생경>

보시는 모든 행(行)의 근원이며, 무명을 제거하고 열반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이웃과 나눔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둠에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보시하는 것은 무지의 고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최상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혜충스님-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